세상을 보는 송호인의 눈

발행인 이기평 | 주간교수 이은경 | 편집장 김미지
주소 225-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
이메일 songhonews@songho.ac.kr
홈페이지 www.songho.ac.kr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 7호

송호신문 창窓

우리대학교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

강원·충청·수도권 지역거점 특성화대학으로 나날이 발전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대학

우리대학교가 교육부의 '2014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Ⅳ유형'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연평균 50억원씩 최대 200억원의 국고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전국 5개 권역 139개 전문대학 중 8개 대학을 선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중심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지원하며, 강원·충청·수도권에서는 우리대학교와 충청대가 선정되었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은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가 표준화한 산업현장 분야별(수준별) 필수 직무능력기준인 NCS를 중심으로 학위·비학위 통합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며, NCS 교육단위별 평가를 통해 교육이수자의 직무능력을 국가가 평생 인증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우리대학교는 특성화사업 선정에 따라 창조 경제 선도형 평생직업교육거점대학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바이오 식품, 관광서비스, 휴먼케어, ICT/SW 등 특성화 분야로 NCS 기반 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강원권 거점대학으로서 현장실무교육 수준 향상을 통해 올해 전국 24위 취업률과 비학위과정 교육수요자의 취·창업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며, 이를 지원할 교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비학위과정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대학 등 강원권의 평생교육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평생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선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소민 기자



NCS란 무엇인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로 국가가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표준화하여 체계화 시킨 것이다. 즉 일자리의 직무명세서이자, 현장적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지침서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학교, 근로자를 대상으로 NCS 기반 교육훈련과 생애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기업들의 인력채용, 인사고과, 배치 및 승진기준을 직무수요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학력과 스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능력중심의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예로 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했더라도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내용과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분야에 취업을 했을때 사람마다 직무능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과 직무능력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현장 직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무중심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하여 교육함으로써 국가가 인정하고 산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학계-관계가 협동하여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한 직무능력 체계의 기준이 NCS이다.

이같이 NCS기반 직업능력개발이 국정과제가 된 직접적 이유는 9%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낮춰보자는 데 있다. 우리나라 신규 근로자들은 산업 현장성이 부족해 입사후 재교육을 받는 데 1인당 6088만 원이 들고 수습기간도 18개월이나 소요된다고 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취업과 연계된 실무중심이 아닌 이론중심의 교육을 받아 실제 현장직무능력과는 괴리가 있다는 데 있다.

- NCS의 구성

NCS는 크게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된다. 직무능력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여기에는 필수능력, 선택능력, 산업공통능력이 있다. 필수능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으로써 한 개인이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고, 선택능력은 해당 개발분야 내에서 직업 및 기업체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능력, 업무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공통능력은 해당 분야에서 직업 혹은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능력을 말한다.

직업기초능력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을 말한다. 즉 모든 산업 혹은 직업에서 기업체의 특성, 성별, 직급 등에 관계없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

- NCS의 활용

NCS 개발을 통해 산업현장은 경력개발경로, 직무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직업능력 자가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할 수 있다. 즉 일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체제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직무능력개발 훈련기준 및 교재개발 등에 활용되어 산업수요맞춤형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 NCS 기반을 통한 현장실무형 인력양성 목표

우리대학교는 창의적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맞춤형인재양성을 위해 NCS기반 현장실무중심의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인력양성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인력양성은 바이오식품, 관광 서비스, 휴먼 케어, ICT/SW(미래형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의 4개 영역으로 설정했다.

학위, 비학위과정을 통합하여 NCS기반으로 운영하며, 비학위과정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현장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014년에는 4개학과(사회복지과, 뷰티케어과, 호텔외식조리과, 보건행정과)의 NCS 학위 교육과정의 개발과 NCS 적용 가능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했으며, 연차별 개발을 통해 2017년까지 전체 학과의 교육과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중심의 첨단 실습기자재 확보 및 개인별 실험실습 환경 구축에 전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는 실무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김미지 기자

홈페이지 : www.songho.ac.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nghocollege

꽃피는 봄이오면 기자를 해야지

송호대학교 신문사 3기 수습기자 모집

<수습기자 조건 >
하나, 책임감
둘, 성실성
셋, 학교와 학과에 대한 관심
넷, 배우려는 열정

<수습기자 혜택 >
하나, 장학금
둘, 교육(글쓰기,취재,사진)
셋, 연 2회 워크숍

<지원방법 >
자격, 15학번 신입생
접수처, 송호관 2층 기획실
접수방법, 지원서 작성 후 제출 (대학 홈페이지 참고)
전형방법, 서류평가-면접

전화 : 033-340-1027 편집장 김미지 010-4010-5160 E-mail : ohtomaa@songho.ac.kr KAKAOTALK : mjmj9016

2015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

올해 수시 1차부터 높은 경쟁률(13:1)을 보였던 우리대학교는 최종적으로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정원내 440명, 정원외 30명)하며 이번 입시를 마감했다.

우리대학교 입시의 중점전략은 지역거점대학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강원도내 우수인재 발굴이었다. 최근 높은 취업률(68.4% 전국 24위)과 보건계열의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국가고시 합격률(치위생과 100%, 간호과 100%)이 이번 입시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입생 중 강원도 학생은 40.9%로 강원·충청·수도권지역거점 특성화대학으로서 강원도내 우수인재발굴 및 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의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에 선정되며 그간 대학이 쌓아온 우수한 교육역량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보건계열 인재양성을 위한 보건과학관 준공, 통학버스 증편 및 서울-횡성 간 KTX 개통(2017년) 등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

김한솔 기자

정시모집 지원률 3.9 : 1

지난 1월 9일 우리대학교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진행된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97명 정원에 383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3.9대 1을 보였다.

지원률이 가장 높았던 과는 간호과로 경쟁률이 19.7대 1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치위생과(12.5대 1), 방사선과(10대 1)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입학처 관계자는 "2014년도 정부재정지원대학,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높은 취업률, 국가고시 100% 합격률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아울러 2015년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했던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해 9월에는 정부재정지원대학, 12월에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Ⅳ유형에 선정되어 평생직업교육의 강원·충청권 거점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2018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예정이고, 지원금은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대학교는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도연 기자

대학생활의 시작, 2015학년도 입학식





우리대학교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월계관에서 신입생 약 470명의 학생들과 함께 2015학년도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수호 목사의 기도, 교학처장의 학사경과보고, 신입생 입학선서를 한 후 장학증서수여식이 있었다. 이어 총장의 환영사와 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전체 11개 학과와 교직교양부의 교수 소개 후 교가제창과 폐회사로 식을 마쳤다.

월계관에서 입학식을 마친 후 신입생들은 각 학과의 임원학생들의 안내에 따라 캠퍼스를 둘러본 뒤, 강의실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신입생 고현석(유아교육과)은 "입학식을 하니 이제 진짜 대학생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는 입학식이 지루하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지루함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고 생각 하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한솔 기자

2015 졸업식

송호대에서의 마지막 일정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교내 월계관에서 이근엽 이사장, 이기평 총장, 내빈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학사학위 및 제 14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올해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375명, 학사 12명 등 총 38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한규호 횡성군수, 한창수 횡성군의회의장,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정명철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성적우수상은 사회복지과 정민화, 보건의료전자과 장희준 외 20명이 수상하였고, 공로상은 치위생과 김지은과 스포츠레져과 스키스노보드전공 이재용 외 14명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강원도지사상, 횡성군수상, 횡성군의회의장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다.

졸업생 김소민(사회복지과)은 "학사모를 쓰니까 진짜 졸업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학교생활한 덕분에 이렇게 상도 받았어요.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 슬프지만 각자 앞으로 해야할 일이 있기에 위안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친구들이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졸업생 임미혜(유아교육과)는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에 앉아있다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졸업식 내내 3년 동안의 추억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유아교육과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어느새 유치원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떠나지만 서로 잊지 않고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유아교육과 동기들! 사랑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교정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한솔 기자

간호과, 치위생과 국가고시 100% 달성

간호과와 치위생과 학생들이 2015년 1월 시행된 국가고시에 전원합격했다.

간호과는 제55회 간호사면허 국가고시에 29명이 응시해 전원합격했다. 첫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평균합격률이 96.7%임을 감안할 때 자랑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간호과 학과장 정혜영교수는 "국가시험 과목마다 튜터를 지정하여 상위성적 학생들이 일부 과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튜터링을 실시하였고, 하기방학부터 자율학습과 기숙사생활을 하였고, 또 모의고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학생들의 성적과 요구도를 고려하여 특강에 유능한 교수님을 초빙해 국가시험 특강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치위생과도 제42회 치위생사 국가고시에 30명이 응시하여 전원합격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전국 평균합격률은 88.9%였다.

치위생과 학과장 이연경교수는 "학우들끼리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가며 공부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도 교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었다. 자율학습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텐데, 힘들다는 말보다는 합격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번 시험이 다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격한 것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었다"라고 전했다.

학교에서는 보건과학관을 신축하여 보건계열 전용 독서실을 마련하고, 국가고시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진선미관 3층에 만드는 등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우리 대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덕고회' 방문행사 개최

지난 3월 12일 횡성의 덕고회(회장 박제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회원들이 우리대학교를 방문했다. 덕고회는 유재규 전 국회의원, 한석용 전 강원도지사, 한상철 전 원주시장 등 과거 지역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원로어르신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날 조태진 전 횡성군수를 비롯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장과 덕고회 회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덕고회 회원들은 그동안 학교가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 지어진 보건과학관을 주의 깊게 둘러본 후, 학교현황과 여러가지 소식을 브리핑 받고 총장과 함께 학교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덕고회 회원은 "그동안 학교가 많이 변화발전하였다.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실버산업을 이끌 보건복지계열의 학과를 증설하여 미래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우리대학교 교직원 2명, 2014 교육행정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평생교육원 김성래 과장



기획실·교학처 최현근 팀장

지난해 10월과 12월 우리대학교 직원 2명이 2014 교육행정부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10월에 전문대학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평생교육원 김성래 과장은 2002년부터 13년간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며 헌신적이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대학행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획실과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며 대학행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평가지표관리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힘썼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12월, 고등교육통계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최현근 팀장은 2000년 3월 우리대학교에 입사하여 현재 기획실 정보지원팀장과 교학처 교학팀장을 맡고 있다.

최팀장은 고등교육통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우리대학교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계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했으며, 정보통신망전산 시스템의 안정적관리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관해 이기평 총장은 "한 해 2명이나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전 교직원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최근 정부재정지원대학, 특성화사업, 고등교육품질인증대학선정 등의 대학발전은 헌신적인 직원들의 전문적 행정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전했다.

김도연 기자

송호대, 2015학년도 전문대학 박람회 참가

'궁금증을 직접 상담을 통해 설명하며,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우리대학교가 2014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15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주관 진학사)에 참가해 수험생들에게 학생부전형 등 입시에 관련된 궁금증을 직접 상담해 주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정시모집 안내를 했다.

방문학생이 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지참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지원가능한 모집단위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주었다.

개별상담을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상세한 입시정보는 물론 적성 및 진로정보도 안내했다. 또한 각 학과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과 및 학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수시 1, 2차 모두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우리대학교는 가등록률 또한 2014년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입학처 관계자는 "2014년도 취업률(68.4%, 전국 전문대학 24위)과 2014년 교육부 전문대학특성화육성사업 선정 덕분에 학생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경기권 통학버스 증편과 국가고시 준비생을 위한 기숙사 증축 등으로 통학이나 거주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어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전했다.

김소민 기자

총동문회 발족



지난 1월 14일 송호대학교 총동문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횡성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다.

이날 총동문회 초대회장으로 정명철(지역관광산업과 05), 부회장으로는 이성우(지역관광산업과 05) 이명옥(생활체육과 08) 동문이 각각 선출되었다.

정명철(58)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와 모교가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송호대 총동문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동문들과 함께 동문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명철 동문은 공근면 출신이며 2선 군의원으로 제6대 횡성군의회 전반기의회 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협의회장, 한농연 군연합회장, 군생활체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김도연 기자

취업지원관 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

우리대학교는 '2014년도 대학 취업지원관지원사업 운영기관평가'에서 전국 101개 대학 중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부터 대학 취업지원관 사업을 시작하여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았으며 취업지원관지원사업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취업지원관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대학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직업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개인의 인적성에 맞는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실 반정자 선생은 앞으로 취업특강, 자기소개서,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스포츠레저과 김지헌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4위



지난 2월 10일 우리대학교 스포츠레저과 김지헌 학생이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제27회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스키-프리스타일 모굴에서 4위를 수상했다.

우리대학교 스포츠레저과는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방학도 반납하며 특별훈련을 진행한 교수들과 학생들의 열정이 합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스포츠레저과 학과장 박영남 교수는 "김지헌 학생의 경기는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멋진 경기였다. 스포츠인재육성을 위한 횡성군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을 뜻하는 University와 올림피아드의 영어표기인 Olympiade의 합성어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여 2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대학생종합스포츠대회이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1960년 프랑스의 샤모니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열리고 있으며 17~28세 사이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김도연 기자

횡성군청 공직자 CS Leaders 프로그램

더 나은 고객만족을 위해 송호대 평생직업교육대학과 함께 나아가다



지난 2월 2일부터 우리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은 SNPG(CS전문교육기관)와 함께 횡성군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CS Leaders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강사는 우리대학의 CS전문강사인 관광(대명)리조트과 채용식 교수로 CS개론, CS전략 및 고객관리실무론 등을 강의했다. 프로그램은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제가 체계적이고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다. 최고의 서비스 종사자가 지향해야 할 기본소양 및 덕목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자격증반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총 6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1회차를 할 때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는 집체교육과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 하는 국가공인 CS Leaders(관리사) 자격증취득 연계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김한솔 기자

학생홍보대사 '쏭 투게더'를 소개합니다



우리대학교에는 11개 학과에 각각 학생홍보대사인 '쏭 투게더' 학생이 있다. 작년 10월에 처음 만들어진 '쏭 투게더'는 학과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부터 학과행사까지 다양한 모습을 취재하여 소식을 알리고 있다. 또한 이들은 페이스북 기자와 대학홍보자료 및 광고 등의 모델, 입시박람회 및 전문대학 EXPO 등의 외부행사 도우미로도 활동하고 있다.

'쏭 투게더' 1기에는 관광(대명)리조트과 우진희, 유아교육과 김하은, 사회복지과 김경완, 보건행정과 장동영, 간호과 한예원, 방사선과 김나현, 치위생과 염예진, 임상병리과 김유연, 스포츠레저과 용승현, 뷰티케어과 고유경, 호텔외식조리과 노광호 학생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쏭 투게더' 2기는 9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쏭 투게더' 학생홍보대사 위촉을 받은 학생은 총장명의의 위촉장을 수여받으며 장학금과 각종 활동을 지원받는다.

김미지 기자

우리대학교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우리대학교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는 특색있는 동아리가 많다. 각 동아리의 분야 및 지도교수를 소개한다.

(등록 순서)

순번	동아리명	지도교수	주관학과	분야
1	손나래	이재용	사회복지과	봉사
2	Sm'S	최연임	임상병리과	학술
3	LUNAR	신귀순	방사선과	학술
4	아뜰리에 뷰티아트	박선주	뷰티케어과	취미
5	예수전도단	홍경숙	간호과	종교
6	CCC	최 경	유아교육과	종교
7	로타랙트	채용식	관광(대명)과	봉사
8	요리조리	김나영	호텔외식조리과	취미
9	VICTORY	박영남	스포츠레저과	취미
10	LOL	변미경	간호과	봉사
11	리버티	정명희	치위생과	취미
12	나도사장	이광모	사회복지과	학술
13	공감	이재용	사회복지과	봉사

각 동아리들은 일년 동안 활동한 증빙자료를 동아리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면 동아리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물품 구매시 담당 교직원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효정 기자

동문탐방 김 순 희 샬롬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과 02)

"현재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숙지하길…"

김순희 원장은 우리대학교 유아교육과 1기 졸업생이며 현재 '샬롬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호대학교는 생명·건강·복지의 가치창조라는 목표아래 이기평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과 21C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있기에 성공적인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가운데 동문탐방을 위해 부족한 사람을 찾아준 유아교육과 후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호대학교 유아교육과 1기 졸업생이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샬롬어린이집' 원장과, 횡성군어린이집 연합회장을 4년째 맡고있는 김순희입니다.

- 입학하시게 된 동기는?

처음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7년째 되던 어느 날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 운영자로서 교직원들의 인사관리 어려움 등 나의 부족한 학식을 고민하던 차에 가까운 횡성군에 본 대학이 유치되면서 유아교육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권유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40명이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과를 변경한 동기들도 있고 해서 졸업시에는 38명이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학교생활이라…? 늦깎이 대학생활이라 너무 즐거웠어요. 대학시절을 추억하다보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아직도 마음이 설레곤 하지요. 당시 만학도 6공주가 있었는데 기혼자들이었지만 남편들의 지극 정성의 내조로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과장님으로 원주 이화유치원을 운영하시는 허선자 교수님을 비롯해 이수광 교수님… 교수님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오른팔이 되어주었고 학생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 달래주기도 했던 그 시절들이 이제는 한 가닥의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생활이 여의치 않아 전공을 살리기 위해 늦게 유아교육을한 동료 친구들 6명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기들!!

당시 학교 뒤편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여 잔디밭에 둘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먹던 일, 교수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정보를 교환하던 일, 젊은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했던 일, 자신감을



◇ 대학시절 동기들과 함께 찍은 졸업사진 모습이다.



◇원장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다.

키우기 위해 책을 읽고 5분 스피치 하던 일 등 재미있던 학창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주마등처럼 지나가곤 합니다.

- 학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밌고 즐겁기만 했던 대학생활이라면 거짓말 같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육현장에서의 일과 병행하다 보니 철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긴 했지만, 교수님들의 배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3년이란 세월이 짧게 여겨질 정도로 마냥 좋았습니다. 학교생활을 뒤돌아보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 이번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녀들을 믿고 맡긴 부모님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입니다. 보육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들은 우리 현장에서 뿌리 뽑아야 되겠지요. 특히 이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나중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의 인성이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정부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 속히 아이들이나 교사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과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발 빠른 대책을 모색하여 보육교직원들과 원아,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현장이 되길 소망하면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이 이 사회에서 하루속히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21세기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델링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사랑과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보육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교사로서의 꿈을 포기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숙지하고, 교수님들의 가르침대로 전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가는 예비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 부모와 동료 간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보육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준비된 예비교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김도연 기자

교직원의 삶과 추억

"지금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되길…"

- 대학시절 추억



송 시 내 선생 (기획실 근무)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발목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도 끝까지 가고야 만다.' 대학 시절 논산에서 공주까지 일주일 동안의 국토대장정은 제게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걸으며 도착한 시골 초등학교의 작은 체육관에서 함께 자고 먹고, 작은 천하나 걸치고 몸에 물만 끼얹어 대충 씻어 넘기며 끝내 완주했고, 몸무게는 일주일 동안 8kg이나 빠졌지만 새카만 사내아이처럼 건강했던 모습.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싶지만 함께 걸어준 친구가 있어 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끔 혼자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롭고 지칠 때, 그때가 그리워지고 생각이 납니다. 만약 대학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학교일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 곳 송호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과장님께서 저에게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때론 힘들어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고 있을 때면 어깨를 다독여 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내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해 보이고 힘들 때면 그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직장생활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른들이 자주 했던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말의 속뜻을 저는 힘든 직장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공부'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열심히 배우고 학습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의 내모습을 되새기면서 마냥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친구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과거를 만나 현재를 위로받을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켜냈으면 해요.

교·수·칼·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 성 자 교수 (간호과)

10여 년 전, 나는 한창 내면의 갈등과 마주한 적이 있었다. 인간관계, 업무상의 일 등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자문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민해도 늘 마음은 편하지 않고 잠재적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때 어떤 책의 한 문장이 들어왔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라고 생각한 괴로운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였다. 때가 너무 늦어서, 여기에 내가 있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또는 반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 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역량이 못 미쳐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주어진 project를 좀 더 멋지게 수행 못함으로 인해 마치 세상이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으나 시간이 가면서 과거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과거 속으로 소멸 되어져 사라졌고,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듯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

20대 까지만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고민을 주위가족이나 선배에게 털어놓고 공감이나 위로를 받고 해결하였으나.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안의 고민을 책을 통해 힘을 얻고, 해결책을 찾고, 위로를 받았다. 그중의 대표적인 책이 로저 로젠 블라트가 지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 이었다. 법칙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에 불안감이 발생 할 때가 있다. 장담하건데,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쁜 일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당신이 잘못한 일은 당신이 먼저 야유를 퍼부어라.
▶잘못은 내 탓이다.
▶서른이 넘었으면 자기인생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말라.
▶당신을 지겹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대단해!"란 찬사를 조심하라.
▶겉모습이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는 아주 많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파고들지 말라.
▶시샘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개선하려 하지 말라.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안다 해도.
▶친구에게 그 친구를 중상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
▶자신을 상징하는 옷차림을 만들라.
▶행복한 인생은 길어봤자 5분이다.
▶자기반성을 적당하게 해야 오래 산다.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자신에게 진실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진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일은 전부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휴가 때는 생각하지 말라.
▶한꺼번에 인생의 8분의 1이상을 바꾸지 말라.
▶무슨 일이든 돈 때문에 하지 말라.
▶원래 목적을 기억하라.
▶자신이 납득 할 수 있는 좋은 고집을 키워라.
▶모닥불을 피울 때 불씨를 위에서부터 붙이지 마라
– 과정이 소중하며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없듯이 탄탄한 학습결과를 위해 기초부터 학습을 배워가는 순리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먼저 사과하라, 화해하라, 도움을 주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한가지다. 바르게. 안 되는 부분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지속 발전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유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어려운 일들에 대해 노력도 안 해보고 불안한 미래를 예측한 듯 일찍 포기를 한다면 최선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능력은 보이지 않게 신장되어 나를 성장시키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가끔 운동을 위한 방편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산을 오를 때, 숨이 차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삶의 목표를 향해 올라간다는 건 마치 계단 오르기 같은 수고로움, 그리고 삶의 정점에서 추락하는 것은 계단을 내려오는 것 이상으로 수월하다."는 생각이다.

공부하는 과정, 공부를 잘하는 것은 힘듦의 연속이다. 마음먹고 결정하여도 끝없이 책상에 앉아 책을 마주 하고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는 건 끈기, 참을성, 목표에 대한 일관적 열정, 쉬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고 그런 유혹들을 극복하는 힘이 필요하다. "오늘만 쉬고 내일 해야지" 이러다가는 시간이 10년이 흘러가도 목표대로 공부하는 내일은 오지 않는다. 항상 오늘 같은 내일이지 내일 같은 오늘이 내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내안의 나는 여러 유형의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늘 이성은 바른 것을 추구하지만 행동과 본능이 바르게만 가지는 않는다. 반성과 후회와 새로운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과 도전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지혜와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는 용기를 잊지 않기를**

……

오늘.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하고 있다.

학·생·칼·럼

유아교육과 예비교사가 외치다!



김 한 솔 (유아교육과 2)

예비교사가 바라본 보육기관 폭행사건

올해 초,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여아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다. CCTV 영상과 함께 전국으로 보도된 유아폭행 뉴스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으로 몰아넣었다.

"꽃으로도 우리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강한 울림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소용돌이치는 건 왜일까?

우리는 이번 폭행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육현실을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정규대학에서 뿐 아니라 단기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 그밖의 사이버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학점만 이수하면 딸 수 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인성이나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어린이집 교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12시간에 가까운 근무에 급여 또한 노동의 대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런 악조건 등이 보육교사들에게 스트레스와 불만을 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폭행사건이 있던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버젓이 폭행사건이 일어나는데, 만약 없는 곳이라면 얼마나 더 많이 폭행사건이 일어나겠는가? 넷째, 아동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또한 급식 위생문제나 안전문제 등에서 사고를 내도 그 처벌이 약하다.

부모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정부당국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된다고 본다.

보육교사는 교사로서의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교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유아를 교육해야 한다. 그래야 편안하고 가족적이고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 단체, 모두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여론에 따라 성급한 조치를 발표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나 폭행으로부터 피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당면해있는 보육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정립하였으면 한다. 출산율을 장려하기에 앞서 정부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학과 탐방

사회복지과

현대사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복지, 그것의 중심에는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있다. 사회복지과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사회복지학과)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과를 만나보았다.

■ 사회복지과는 어떤 과인가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고,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및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데 목표를 두는 과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사회과학지식에 바탕을 두고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전문 사회방법 및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분석, 개발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 합니다.

■ 사회복지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과에는 장애등급을 가진 학우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을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일반 학생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와 비장애우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때문에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만학도 학생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 사회복지과 교수님들만의 특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에는 세 명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학과장님인 이재용 교수님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저희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시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광모 교수님은 항상 편안한 미소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뒤에서 지켜봐주시며 이해해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강윤경 교수님은 유일한 여교수님이십니다. 넘치는 카리스마로 저희가 혹여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학생들에게 의욕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 교수님들은 제각기 다른 성격과 개성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분들이시고 항상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시설 등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체 기업복지담당자, NGO활동가, 병원의료 사회사업가,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대학의 인문사회계열학과로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과를 다니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2급과 청소년 지도사 등입니다.

김효정 기자









●●● 신입생을 만나보다 ●●●

"아직은 어리둥절하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 치위생과 이용주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송호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첫 느낌은 '공기가 참 좋다'였습니다. 산 속에 자리하고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맑게 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대학생활이라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아직은 잘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 박유진



저는 언니가 현재 우리대학교 사회복지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니를 따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편안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 관광(대명)리조트과 김찬회



처음 우리학교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학교를 홍보하러 오신 교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원래 관광(대명)리조트과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 송호대학교 관광(대명)리조트과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한 대학생활이라 얼떨떨하지만 제가 선택한 만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학교 분위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 느낌 그대로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제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치위생과 김진



저는 수시로 지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치위생과에 다니고 싶어 알아보다가 송호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지역민들이 많아 타지에서 오는 제가 혹시나 친구를 사귀는데 힘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친절하고 잘해주어 금방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지원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고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 유아교육과 조성민



우리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문대학교의 장점을 잘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친구들을 많이 사귀진 못했지만 그래도 학과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고, 즐겁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입학한 대학. 그러나 막상 와보니 낯선 곳에 혼자 떨어져 앞으로 대학생활이 걱정도 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아마 신입생들의 대부분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된 여러분! 내가 선택한 대학, 꿈을 위해 지원한 학과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전하는 멋진 송호인이 되길 응원한다. 김미지 기자

●●● 학생들의 발언대 ●●●

나의 꿈에 다가서기 위해 학교와 교수님들께 받고 싶은 지원

오늘도 학생들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교수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원한다.

학생들의 고민과 소망이 무엇인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지원받고 싶은지, 발언대를 통해 들어보았다.

사회복지과 2 김○○ :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사회복지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사회복지나 아동복지 등의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점차 공부하다보니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영역 등 다양한 복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에 대해 알고 싶고 나의 적성에 더 알맞는 분야를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서 넓은 사회복지 분야를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선배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강원도 지역의 취직자리로 안내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학교가 강원도에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지역의 취직자리도 알아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아교육과 3 최○○ : 저는 유치원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꿈에 더 다가서기 위해 저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종이접기 자격증이나 유아체육지도 자격증 등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협회가 있는데 어떤 협회에서 취득하는 것이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로서 꼭 필요하고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뿐 아니라 유아심리치료사, 유아잡지사 기자, 유아방송작가 등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 2 이○○ : 보건행정과를 졸업하면 병원 원무과로 취업하거나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취득 후 의무기록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공부를 하고 싶어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께서 취업 진로뿐만 아니라 대학편입에 대한 상담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4년제 대학 편입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선배들의 경우 자격증시험 준비기간이 짧아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기간을 오래두고 국가고시를 위한 특강이나 모의고사를 많이 풀도록 하여 우리 보건행정과의 국가고시 합격률도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정리 : 김미지 기자

송호 가족이 되기까지 모두로부터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장 수 호 목사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앙이 될 수도

2012년 9월이었다. 양양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송호대학교에서 교목을 뽑는데 자신에게 추천 의뢰가 들어왔다며 내게 전화를 했다. 친구는 교목이 내게 잘 어울릴 것이라며, 내 등을 떠밀고 있었다. "교목이라!" 전화를 받고 혼자 내뱉은 소리였다. 대학 교목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원하는 좋은 자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좋은 자리는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친구에게 며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주위 분들과 상의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마음의 두려움을 정리하기 전까지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내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이유가 분명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너무 익숙해 이제는 편해진 교회 사역들과 사람들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대학이라는 최고의 지성과 인격 속으로 들어가 목사로서의 내 인격과 지성을 시험받아야 하는 것도 두려움이었다. 또 교목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학교 현실도 두려움이었다. 거기다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나 결과를 내 놓아야 하는 것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압박감이었다. 새롭게 시작한 좋은 기회가 나를 실패한 목사로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마음의 두려움을 정리하기 전까지, 나는 송호대학교로 가는 길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내 개인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을 수는…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또 왔다. 추천을 의뢰한 분이 춘천에 오는데 한 번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내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거절했다. 조만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분명 나 혼자만 추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곳의 적임자가 아니라면 선발 과정에서 떨어질 것이고, 내가 그곳에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것이며, 학교 사역을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부터 막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되었다. 이쯤 생각이 정리되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 했고, 추천을 의뢰한 분에게 한 번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드렸다. 이후 두 세 번의 만남과 면접을 거쳐 송호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 낯설음과 어색함에 힘들어 한다. 사실 이것을 극복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 어색함을 못 이겨 끝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뜻한 환대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다만 유령 취급만이라도 받지 않았으면 했다. 모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는 목사라는 신분과 역할 이면에는, 모든 송호 가족들이 말하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종교적 문제, 학교 내에서의 목사의 위치와 역학관계, 모든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목사인 나는 환영받을 꼭 필요한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북한 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송호 가족들은 나에게 깊은 배려를 주어왔다. 목사로서 지난 2년 5개월 동안 모든 것이 낯선 이 학교에서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곳 송호가족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라 여기며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모두로부터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목사도 사람이라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러나 목사는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하려 하고, 관심받지 못해도 관심주려 하는 사람이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의 내 인격의 한계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 머무는 한, 모두로부터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내 인격의 한계 안에서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려 한다.

학생과 함께하는 내일의 취업파트너

취업지원실을 소개합니다



취업마인드도 UP, 취업스킬도 UP, 취업자신감 UP도, 2012~2014년 대학취업지원관 지원사업 운영기관 평가 3년 연속 '우수' 대학 선정.

우리 대학교 송호관 1층에는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실(JOB CAFE)**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실에서 제공서비스

- 1:1 개인별 맞춤 진로상담 및 취업상담
- 개별 맞춤형 취업정보와 기업정보 제공
- 성격유형검사 및 진로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및 클리닉
- 원하는 기업체와의 연계, 알선, 동행면접

우리 대학교 반정자 취업지원관 선생의 취업에 관한 3가지 TIP!!

① 너 자신을 알라!
-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의 성격과 흥미, 적성을 이해하는 것은 취업의 시작!

② 나만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 명확한 목표 설정!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회사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필요한 경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연구한다면 한발 앞서는 준비!

③ 기회를 잡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라!
- 면접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먼저, 차별화된 입사지원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의 생각과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면접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PR능력을 갖추면 준비 완료!

'15년도 취업지원실에서는

① 페이스북(www.facebook.com/songhocareer1004)성실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로 문화상품권과 카페(그라찌에)상품권을 배부할 예정

② 전년도에 이어 제2회 입사서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상금 백 만원 상당의 부상과 상장 수여할 예정

③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2기 잡클리닉프로그램'을 모집하여 개별 상담 및 지도할 학생을 모집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상담 이용방법

① 직접 방문(송호관 취업지원실) 전화: 033-340-1036
② 페이스북 메시지나 댓글로 신청(www.facebook.com/songhocareer1004)
③ 온라인 예약방법
(www.work.go.kr)홈페이지 접속 → 취업지원관 클릭 → 상담예약하기 클릭 → 원하는 예약 날짜 클릭 → 최종예약하기 클릭

캠퍼스 소개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는 캠퍼스, 속속들이 알아보자!

2015년 신입생들은 어떤 건물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를 것이다. 각 건물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푸른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캠퍼스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1. 송호관 2. 창조관 3. 보건과학관 4. 도약관 5. 웰빙관 6. 월계관 7. 진선미관(도서관, 기숙사) 8. 실습동
9. 예지원(남자기숙사) 10. 예지원(여자기숙사) 11. 대운동장 12. 농구장 13. 주차장 14. 연못 15. 정문

1 송호관

학교의 행정업무를 맡아하는 교학처가 있어 재학생들이 많이 찾는 건물이다. 1층에는 CU편의점과 그라찌에(카페)가 있어 학생들이 편히 쉬고 간단한 간식을 사먹을 수 있다. 또한 보건실과 취업지원실 등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장소가 있다. 2층에는 PC 실습실이 있으며 3층에는 뷰티케어과 실습실이 있다.

2 창조관

창조관은 주로 유아교육과, 관광(대명)리조트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1층에는 종합강의실이 있으며 유아교육과의 실습실과 무대/공연실 기악실이 있다. 또한 우체국 ATM기가 자리하고 있다. 2층에는 관광(대명)리조트과의 식음료 실습실과 객실 실습실이 있고 3층에는 어학실이 있다.

3 보건과학관

2014년에 완공된 최신식 건물인 보건과학관은 1, 2층에는 간호과, 3층에는 임상병리과, 4층에는 치위생과, 5층에는 보건행정과의 실습실이 있으며 각 층마다 독서실이 있다.

4 도약관

도약관 1층과 2층에는 방사선과의 실습실이 있으며 3층에는 예배당이 있다. 예배당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5 웰빙관

웰빙관은 호텔외식조리과가 실습을 하며 수업할 수 있도록 조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물 앞에는 테라스가 있어 종종 호텔외식조리과에서 행사가 열릴 때 사용하고 있다.

6 월계관

월계관은 체육관으로 주로 스포츠레저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실습실과 웨이트 트레이닝실이 있어 학생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곳이다. 또한 입학식, 졸업식 등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강당의 역할도 하고 있다. 체육관 입구에는 승차권 발매기가 있다.

7 진선미관

이곳의 1층에는 구내식당과 매점, 농협 ATM기, 잔돈 교환기, 승차권 발매기가 있다. 2층에는 도서관과 미디어실, 독서실이 있으며 다양한 책이 구비되어 있다.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문화와 학습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단, 3층에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 기숙사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8 실습동

작은 체육관으로 쓰이고 있는 실습동에서는 체육실기, 댄스스포츠 등의 교양수업을 한다. 이곳은 학생들이 행사준비 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

9 10 예지원(남/여 기숙사)

예지원은 남학생기숙사와 여학생기숙사가 있다.
(단, 비기숙사생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 도서 추천 자료 ●●●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 은 경(유아교육과 교수)

1. 작가 소개

소설가 박완서(朴婉緖)는 1970년 동아일보사가 모집한 '여성동아 장편소설'에 『裸木』이 당선됨으로써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작품으로 〈그 가을의 사흘 동안〉, 〈엄마의 말뚝〉, 〈미망〉, 〈꿈꾸는 인큐베이터〉,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살아있는 날의 시작〉,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아주 오래된 농담〉, 〈친절한 복희씨〉 등이 있으며,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2.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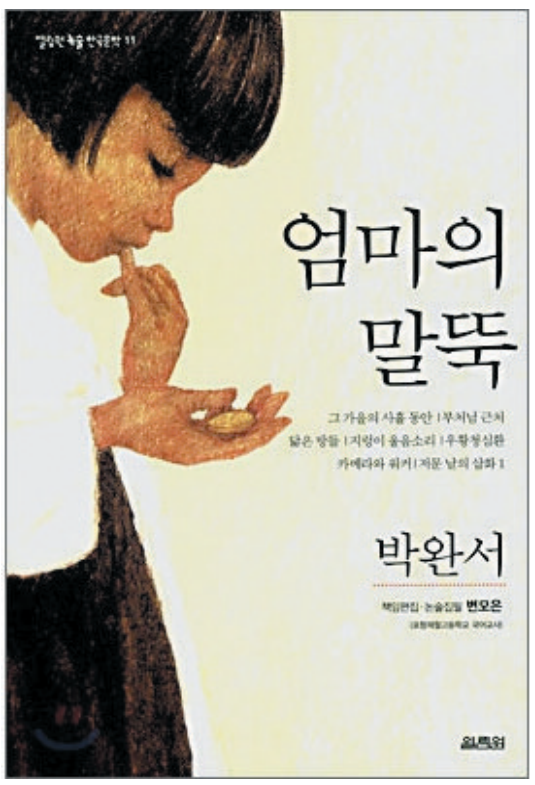
〈엄마의 말뚝〉은 2007년에 출간된 작품집으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된 단편 연작소설이다.

1981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엄마의 말뚝〉은 전쟁으로 인해 한 가정과 모녀의 삶이 파괴되는 슬픈 가족사를 그린 소설로, 식민지 해방과 한국전쟁, 지금까지 분단된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 모녀의 이야기이다. 〈엄마의 말뚝〉 1이 전쟁 당시 어린 딸의 입장에서 그린 이야기라면 2, 3은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모녀의 죄의식, 갈등을 첨예하게 다루었으며, 성장한 딸이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이야기이다.

3. 작품 이해

〈엄마의 말뚝〉 1은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평생 상처로 살아온 여자의 억척스러운 생활 의지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의 말뚝〉 2 에서는 전쟁과 가족 상실, 격동의 세월을 이겨 온 엄마의 집념과 한을 표현하고 있다. 엄마에 대한 나의 정신적 구속감, 가장 역할을 대리하게 된 여성, 죽은 오빠대신 살아있다고 느끼는 딸의 죄의식 등은 모녀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말뚝〉 3은 제목인 '엄마의 말뚝'의 상징적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아내와 어머니가 된 딸이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말뚝'은 '문 안'으로 상징되는 교육받고 윤택한 삶에 대한 어머니의 강렬한 집념과 의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열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딸인 '나'에게 있어 '말뚝'은 죽은 오빠를 대신하여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과 의무, 구속감을 상징하는데, 진정한 말뚝은 어머니의 가슴에 못 박혀 있는 아들에 대한 사무친 한, 오빠라는 말뚝(기둥)에 묶인 채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한 서린 가슴을 의미한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38선의 말뚝을 시사한다. 아들의 화장이 그러하듯 어머니가 화장을 원했던 것도 아들과 정답게 살았던 고향(개성)으로 날아가고 싶은 그리움을 간절히 나타내는 것이다. 〈엄마의 말뚝〉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빠라는 존재를 둔 모녀간의 오랜 갈등을 통해 상처란 얼마나 깊고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거듭 덧나는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모녀는 공동의 상처를 안고 있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매개로 공감대를 갖게 되어 연민을 느끼는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어머니의 존재가 딸의 정신적 성장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인간과 삶의 근원적 문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작가는 모녀의 대립관계를 통해 갈등을 극대화시키다가 힘겹게 서로를 끌어안는 유대관계로 나아감으로써 갈등 치유의 열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던 전쟁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이를 분단과 이산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연결시키면서 분단극복의지를 형상화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념 대립의 아픈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작가는 이 작품에서 엄마의 삶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리기보다는, 가족사, 민족사의 차원으로까지 고양시켜 보여주고 있다.

나도 작가 코너

연혜진(유아교육과 3)



나 무

하민호(사회복지과 2)

수 만 개의 유리조각
박히는 겨울
추운 달빛만이 세상을
따뜻이 감싸 안고
홀로 발가벗은
내 몸을 감싸주었다

해가 지날수록
원형은 늘어가고
나의 팔과 다리는 더 길게
늘어나며 그러다 보면
따스한 봄 햇살만이
나를 반긴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나를 괴롭히며
험하게 다룰 때도 있지만 하늘이 준 선물을
생각하며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몸이 꿈틀꿈틀 간지럽기 시작한다
나의 몸 위로 슬그머니 올라오려 한다
항상 그러하듯 나는 또 다른 계절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살이 나를 반기고 있다.



재밌게 풀고 선물도 받고

1. 올해 우리대학교의 신입생 등록률은 몇 퍼센트인가?
2. 우리대학교의 동아리는 몇 개인가?
3. 기획실 송시내 선생이 대학시절 도전했던 것은?
4.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보인 학과는?
5. 이번 7호의 학과탐방 대상 학과는?
6. 이번 7호에 소개된 도서의 제목은?
7. 승차권 발매기가 있는 건물은 어디인가?
8. 총동문회 초대회장은 누구인가?
9. NCS는 무엇의 약자인가?

▷접수기간 : 2015년 5월 29일(금) 까지
▷접수방법 : 010-4010-5160번으로 정답을 전송해 주세요.
(학과, 학번, 이름 필히 기재)